

第20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7.2.12.~2.15.)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20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161
II. 제2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63
III. 제2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69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179
2. 200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81
3.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	185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2월 12일 (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201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신현영)

(11시 00분 개식)

(11시 02분 폐식)

● 의사담당 신현영

지금부터 제2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
의를 시작하겠습니다.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2월 12일 (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2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00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11시 02분 개의)

● 의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박의상 교육국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안성배 중등교육과장께서는 교원인사 작업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월 26일자 교육인적자원부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하신 부교육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기용

존경하는 성영용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1월 26일자 정부 인사에 따라 교

육인적자원부 기획홍보관리관으로 전보한 서명범 부교육감 후임으로 발령된 김효겸 부교육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단상 앞으로 나와 인사함)
신임 김효겸 부교육감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광운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69년 교육계에 투신한 이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부 감사관실, 경북대학교, 한밭대학교 등에서 근무하다가 목포대학교, 공주대 사무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우리 교육청에 부교육감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일선 교육현장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다양한 교육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교육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명용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성명용

먼저 의사과장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상황 등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

니다.

● 의사과장 정명환

의사과장 정명환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와 안건 접수상황, 도의회 처리상황, 그리고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2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200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제2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98회 및 제199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안건의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8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신 충청북도 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당초 인용 조문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개정된 법률안이 같은 내용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로 수정하여 2007년 1월 29일 제256회 충청북도의회에서 수정가결 되었

으며, 제19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신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2007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및 답변이 있겠으며 200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0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8분)

● 의장 성영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2일부터 2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2월 13일과 2월 14일 2일간은 2007년도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의안관련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2월 15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

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2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2일부터 2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200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10분)

● 의장 성영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성영용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처분하

고자 하는 재산은 진천군 진천읍 산척리 483번지 42호에 위치한 진천농·공고 유희 실습지 2만 6,580㎡로 2007년 학과 개편으로 인한 농업과 폐과 이후 현재까지 주민들에게 경작용으로 사용허가 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동 부지에 대하여 진천군에서 매년 홍수 등으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수해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집단이주 개선복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습지 매각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 오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한 결과 매각하고자 하는 실습지는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학과 개편으로 인하여 교육목적으로의 활용가치가 적으며 임대자들 또한 동 사업에 동의하고 있어 진천군 수해지역 주민들의 주거시설 편의증진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명용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현장방문과 협의를 거쳐 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김부웅 위원님과 박노성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참 조 : 200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별첨 2)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용, 박노성, 서수용,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12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김효겸,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200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별첨 2)
- ▶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별첨 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2월 15일 (목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附議된 案件

1. 200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김부웅 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 의장 성영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의장 성영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또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웅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질의가 가결에 어떠한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님을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량해 주세요.

또 관계 공무원의 업무의 발목을 잡는 것도 전혀 아니라는 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것은 어제 저희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수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숙원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가 발목을 잡아서 향후에 또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발목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못했다는 이런 질책이 그것도 싫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저희가 방해하는 거 이것도 싫고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은 어떤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리에서 답변함)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신 국장님, 많은 업무처리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또 까다롭고 일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조금은 교육행정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하려고 하는 안전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 과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서 앞으로 잘 좀 해 보자는 이런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접수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이 건이.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7일날 진천군청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오갑지구 주민 이전 부지 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매수가 가능한지 이렇게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 김부웅 위원

물론 문서로 접수됐겠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당초에는 이제 진천군 담당 공무원들이 저희 교육청을 방문을 해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문으로 접수가 안됐고요 그 다음에 공문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 김부웅 위원

사람이 왔었군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 김부웅 위원

저도 그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해지역의 주민들에게 마음놓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자는 그러한 사업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꼭 학교 땅을 대상지로 한 것은 그 사람들이 현재 사는 곳과 가깝고, 또 자기들의 경작지가 가깝기 때문에 아마 그 곳을 희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반면에 사유지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공유지 학교 땅 같은 것은 해결하기가 쉽다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곳을 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고요, 다만 진천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더구나 그 지역이 주민들 이주하는데 상당히 적합지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이, 저희가 소유한 토지가 진천농·공고에서 농과가 폐지되면서 유휴 실습지로 관리하면서 개인한테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향후에 교육적으로 활용 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민 숙원 사업을 풀어주는 의미에서 매수 협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 김부웅 위원

그런데 이 재산문제는 우리가 좀더 깊이 숙고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역의 여론을 청취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가치를, 교육재산에 대한 가치를 높인다든가 또 교육재산을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어떤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하는 방안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 토지를 바

로 매각을 하기보다는 다른 공유지하고, 진천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교환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교육가치를.....

● 김부웅 위원

그것은 다음 질의에서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 김부웅 위원

그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 해당 학교, 이제 학교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측하고 충분히 협의 를 해서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직접 조사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 당사자들은요 이해 관계가 있고, 또 그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해 관계 때문에 찬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그곳에 살고 있다보니까 얘기를 듣 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도 상당수 있다 는 것을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현장방문 때 가서 저희 가 목격한 것은 아주 참 곤란한 이런 점 이 있었는데, 저희들 심의도 받기 전이었 습니다만 그 관계 공무원의 설명에 의하

[제201회-제2차 본회의]

면 확정된 사업이요,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협조해 달라는 그 공무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참 몹시 당황을 했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부분에 대해서.....

● 김부웅 위원

관계자는 그 문제를 얼른 해결해서 자기들의 사업을 추진하고 싶겠지만 엄연히 심의를 받는 자리인데, 그런데도 그 확정된 사업임을 얘기하는데 본청 공무원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지도 없었고, 또 그런 차트를 가지고 나와서 한다는 일이 참으로 이견 교육위원들을 왜 거기 와 앉혔나 하는 이런 생각에 자괴감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좀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다만.....

● 교육감 이기용

지금 일문일답을 하시는 겁니까?

다 말씀하시고 제가 대답을 하는 겁니까. 계속 일문일답으로 하실 겁니까?

● 김부웅 위원

예

● 교육감 이기용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추진해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결정하면 우리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저는 뭐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 교육감 이기용

아니 글썽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지금.....

● 김부웅 위원

절차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 도중에 김병우 위원님이 조금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그냥 제가 여길 왜 왔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현지 조사도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영성했습니다. 사실은. 절차도 참 어색한 부분이 많은데 이게 그냥 심의 요청을 하면은 쉽게 통과되리라 생각을 하셨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군청에서 얘기할 때는 예정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갖다가 예정 확정지로 담당공무원이 잘못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부웅 위원

제가 현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거야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접수된 날로부터 9월 달에 접수됐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어떤 교육위원님들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전 저희들이 결정하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직접 협의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랬군요.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요 현대오토넷이라는 아주 거대한 기업이 하나 들어옵니다. 지금 공장을 신축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아마 준공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종업원이 약 3,000명 이상 거기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학생수가 자연히 증가가 돼서 앞으로도 교육용 부지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참에 우리가 쉽게 다른 기관에게 해결해 주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는 그것이 잘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예가 그 전에 있었는데, 이 참에 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현재 학교용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는, 그게 기반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감의 사전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시계획을 변경을 할 때 저희 교육청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은 그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지 확보하는데 있어서 관계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부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는 그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 전체 부지의 반 정도, 거기 1만 5,000평 정도인데 약 한 8,000평 정도를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그 반은 남게 되거든요. 그 반에 대한 앞으로의 사용계획은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반을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매각을 하게 되면은 주변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살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상당히 중

[제201회-제2차 본회의]

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현재는 갖고 있지 않지만은 보다 교육가치가 높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학교에서도 쓰지 않을 땅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직 이용계획이 없는 건데, 그런 땅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진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다 매수를 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시다만은 그쪽에서 필요한 부지가 한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오늘까지 안전을 올리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본청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었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 김부웅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적 가치를 한번 판단해본 적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그 땅은

진천읍 소재지에서 직선 거리로 3km 이내에 들어 있습니다. 또 새로 들어가는 혁신도시 접경 지역에서 약 4km 이내에 들어 있는 그런 땅이고, 또 교통이 사통팔달 아주 잘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그 재산적 가치가 상당히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런 곳인데 우리가 재산적 가치를 올라간다는 생각이 없이 그런 것을 쉽게 해결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감 이기용

우리 위원님도 고향이시라 잘 알겠지만 저도 그 지역을 잘 아는데, 거기가 무슨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문화마을이 건설된다는 것이 아니고 수해 나는 지역이 이주한다고 해서 저도 적극 검토를 한 것이고, 거기가 1만 한 6,000평 부지가 되는데 8,000평이 들어가고 8,000평이 남으면 제 판단은 이것은 나중에 그 지역이 마을 확장됐을 때에 학교부지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8,000평이면은, 그래서 저도 그 8,000평 소용은, 나머지 8,000평은 그런 방면으로 쓰면 더 효용성이 높아지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제 생각에는요 과연 그 재산적 가치가 앞으로 상당히 상승하리라는 기대를 가지

고 있는 땅인데 그 땅이 학교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이라면은 이렇게 쉽게 큰 땅을 넘길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관계 공무원이, 여기 추진하시는 분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 이렇게 쉽게 이런 데 동의를 해서 할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만 어떻습니까?

● 교육감 이기용

맞습니다.

그 아마 위치도 좋지만은 개인 땅을 하려면 금년도에 그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그런 아마 뜻이 있었을 것이고, 또 저도 그 지역이 이제 무슨 혁신도시니 뭐가 들어서 땅값이 상승되려는지 모르지만은 땅값 상승 이전에 이거는 그 주민들의 기존 생존권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일종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관계되기 때문에 이거는 땅값 상승하고는 그건 절대 고려하지 않았습시다.

● 김부웅 위원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감이고 진천에 사는 사람으로서 꼭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처리하는 일에 탄지를 거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일이 많이 있을텐데 지금 이 사안 같이 영성하게 대처를 해서 교육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분들이 “아, 우리 여기 왜 왔어” 이런 감을 갖게 하실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이번 건에 대해서 다소 저희들이 처리하는 절차에 있어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좀 기해서 사전에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거쳐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보니까 엉뚱한 부분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분명히요 여기 같은 저희 동료 위원들, 저를 포함해서 이분들은 주민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제시하고 집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게 저희들의 주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진 사업이라도 저희 교육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면은 사전에 그런 사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잘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 앞으로 그런 관행들이 고쳐가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제201회-제2차 본회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웅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부웅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교육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폐회)

○ 출석위원 : 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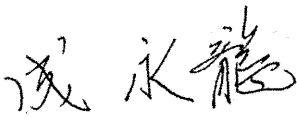
의장 성영웅, 부의장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박노성, 서수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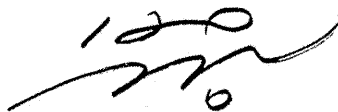
○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웅, 부교육감 김효겸, 교육국장 박의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제2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7. 2. .

의 장 성 영 용 

위 원 김 부 웅 

위 원 박 노 성 

의사국장 박 경 석 

(별첨 1)

의 사 일 정 (안)

제2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7. 2. 12. ~ 2. 15.(4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월 12일(월)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2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7. 2. 12. ~ 2. 15. (4일간) 2.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input type="checkbox"/> 산 회	제안설명
2월 13일(화) 10:00	<input type="checkbox"/> 2007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본회의 휴 회
2월 14일(수)	<input type="checkbox"/> 의안관련 현장방문 - 진천농공고 (유휴 실습지)	본회의 휴 회
2월 15일(목) 11:00	[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201-1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2월 > 일 (제 201 회)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 출 연 월 일	2007년 2월 > 일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01-1
----------	-------

제출연월일 : 2007. 2.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사유

공유재산의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처 분

(단위 : m², 천원)

기 관 명	처분 재산명	구분	소 재 지 번	수량(m ²)	대장금액
진천농공고	유휴 실습지	토지	진천군 진천읍 산척리 483-42번지	26,580	313,644

제안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

붙 임 : 처분 위치도 1부.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2007년상반기			2007년하반기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1	26,580	313,644				1	26,580	313,644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1	26,580	313,644				1	26,580	313,644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건물									
		기타									

2.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m²,천원)

기관명	재산의 표시			대 장 금 액	처분 시기	처 분 사 유	매 입 요청자	비고
	구분	소재지	수 량					
진 천 농공고	토지	진천군 진천읍 산척리 483-42	26,580	313,644	상반기	-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음 - 진천군의 상습 수해지역 주민 집단 이주를 위한 매수요청	진천 군청	

진천농공고 토지 처분 위치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수 량 (㎡)	대장금액 (천원)	사 유
진천군 진천읍 산척리	483-42	답	26,580	313,6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음 ○ 진천군의 상습 수해지역 주민 집단이주를 위한 매수요청
계			26,580	313,644	



(별첨 3)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

·일 시 : 2007. 2. 13.(화) 10:00

·장 소 : 소위원회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10시 00분 회의시작)

● 의사담당 신현영

지금부터 교육과학연구원 등 6개 직속 기관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존경하는 동료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 강영선 원장님, 단재교육연수원 유정현 원장님, 중앙도서관장 조계환 관장님, 학생회관 김용환 관장님, 학생종합수련원 박영하 원장님, 학생외국어교육원 김준곤 원장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신 직속기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게 되는 주요업무계획은 금년 1년간의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계획이 총 집결되어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

한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내용 및 기관별 현황과 현안 문제 등을 파악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활용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가 교육위원님과 직속기관장님 간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협의의 자리가 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직속기관장을 대표해서 교육과학연구원 강영선 원장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연구원장 강영선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강영선입니다.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옵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성영용 의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보살핌으로 우리 충북교육은 큰 발전은 물론 안정된 교육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교육현장과 교육가족을 이끌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우리 직속기관은 미래를 여는 충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북교육 실현과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인재육성을 위해 더욱 더 열정적으로 실력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지원 체제 구축과 교육력을 제고하는 연수 운영, 지식정보 제공, 평생교육 진흥, 체험학습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충북 인재육성 등 각종 교육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면한 교육현안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육위원님들께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직속기관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고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명용

강영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직속기관 주요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순서는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기관별 일반현황 등 공통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및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10분 이내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로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는 위원님들의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가능한한 간략하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강영선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순으로 업무 보고)

▶ 참 조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별책)

● 의장 성명용

이상으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11시 20분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계속)

● 의장 성명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속기관별 주요업무에 대한 질

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위원님들의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정수 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곽정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정수 위원

직속기관장님들, 금번 1년 사업 계획 구상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있어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그냥 순서 없이 외국어교육원 거기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이렇게 돼 있어서 그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뜻보다는 좀더 공격적으로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양성, 이렇게 한번 타이틀을 바꿔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공격적으로 크게 한번 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시설현황을 제가 언뜻 보니까 다른 데는 제곱미터나 평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실수만 나와 있어서 그 크기나 규모를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것도 제곱미터나 이런 평수로 표시가 됐으면 좀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쉽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 그 다

음에 수용인원에도 보면 원장실 1, 수용인원 8, 이렇게 해서 꼭 수용인원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런 것도 다음 서류할 때는 참고해서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저희들만 보는 서류가 아니고 외부로 나가는 서류인데 좀 한번 신중히 한번 밑에를 봐야 되겠다. 예를 들면 휴게실 하나 20명이 수용된다, 뭐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원장실 1, 수용인원이 한 명, 미스프린트.....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다 수용인원이 있어서 그건 좀 한번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자율학습 30기, 그런데 이게 1회에 몇 명이 기간은 어땠고 몇 시간짜리 했는지 대상은 누구였고 선발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이 그냥 사이버가정학습 자율운영 30기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게 또 작년도에 그 사업내용이었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이 안 들어 있어서 이게 일과성으로 끝나는 행사인지 아니면 금년에도 계속되는 행사인데 그것이 기록이 안된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학부모와 함께 하는 주말 프로그램 개설 해서 작년도에 보면 그게 학부모는 빠지고 그냥 그랬는데 금년에는 학부모를 포함을 해서 좀더 확대하고 공격적으로 접

근이 됐는데 보니까 비합속,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비합속보다는 합속이 더, 오고가는 시간도 또 야간프로그램도 할 수 있어서 더 성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교육원 가꾸기, 그래서 보니까 거기 교육생의 만족도 제고하는데 그 앞에 타이틀이 복지사업 추진 그랬는데 사실은 이 교육생의 만족도는 따뜻하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교육내용이 얼마나 알뜰하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나 하는 그런 쪽이 그 만족도를 더 높이는 것이 돼서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을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은 제가 한번 훑어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원도 이렇게 계속 해요?

● 의장 성영웅

예, 하세요.

● 객정수 위원

그 다음에.....

● 의장 성영웅

답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 객정수 위원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감사합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 김준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꼭 대답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이버 가정학습 그 숫자는 저희들이 안 적었지만은 기당 약 20명 정도 학생이 매번 들어옵니다. 학생들이 의무성이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원하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약 20명 최소한 학생수를 잡고 연간 인원수를 볼 때 600명 정도 이상의 학생이 들어와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이라는 말을 선도하는 뭐 이렇게 말씀하신 상당히 미래의 거시적인 입장에서 도움을 주신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끝으로 저희들이 학부모 과정, 학부모 과정은 무박으로 해 놨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말이고 그래서 원어민들이 우선 없다는 거, 원어민들이 주말이 되면 금요일 오후부터 여행을 가거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아주 교섭을 해서 일정비를 미리 1년치를 쪽 잡니다. 그래갖고서 몇몇 며칠을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누가 근무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원어민을 간신히 붙잡아 놓고, 우리가 10명 중에 4명을 붙잡아 놓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선생님

들도 주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은 우리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들어와
서 또 이렇게 4명이 들어와서 도움을 주
시고 이렇게 해서 숙박을 하면서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저
희들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곽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수과정에 보면 교감직무과
정 또 교장연수과정 쪽 있는데 거기 제가
근무할 때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이 선
진학교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
고 아마 선배 교장과의 대화 또는 선진학
교를 보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초·중등 상호 교육
의 이해, 뭐 이런 정도의 타이틀을 붙여
도 좋고, 또 중등교장이나 교감 연수생이
초등학교에 잘 된 데도 가봐야 되지 않겠
느냐, 그래서 보통학교의 연계 프로그램
을 상호 공유한다면 초등학교 교감연수
대상자한테도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한번
보여주고 또 실제 선배 교장과의 대화도
시켜보고 그래서 그 상호 교육강의 요소
를 잘 때 상호교환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두
군대를 다 가는 거죠. 초등학교, 예를 들

어서 교감선생님이 초등학교만 가는 게
아니라 오전 오후로 나뉘도 좋고 그래서
초등학교도 방문하고 중학교도 방문하고,
역시 중등도 마찬가지로 초등 중등을 방
문하는, 그래서 상호 교환 프로그램이 있
으면 교육의 연계성에도, 또 상호 초·중
등이 통합하는 데도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
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예산이 25억을 들
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25
억을 들어서 리모델링하면 거기 아마 교
원연수를 하면서 영어교육을 거기서 먹고
자면서 할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지금 25억을 들어서 그것을 한다고 그러
면 물론 준비를 잘 하시겠지만 아마 강사
나 뭐 이런 것이 외국어교육원과 어떻게
서로 서로 강사풀제랄까 그래서 수당을
더 주든지 해도 서로 될 수 있는 그런 상
호협력체제가 이루어져서 돼야지 좀더 효
과적이고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을까 그
런 생각이 들어서 두 기관이 그런 면에서
같이 고민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
리겠습니다.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예, 잘 알았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 다음에 학생회관 관장님께 한번 여
쭈어보겠습니다.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기반 조성하는 그 난에 보면 경영합리화를 통한 수익 균형 유지 그래가지고 수영장 운영수입 증대 해서 목표액이 1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는 9억 1,5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억 정도를, 예산서랑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차이가 나서 그것은 제가 될 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해서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 학생회관장 김용환

학생회관장 김용환입니다.

그 예산 세울 때는 2005년도에 수입액이 9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하기를 2007년도에는 한 9억 5,000 정도 되겠다고 했었는데 2006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거의 10억 8,000 정도가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드릴 때는 11억 정도로 목표액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추경을 할 기회가 있으면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곽정수 위원

예산보다 2억 정도를 더 지금.....

● 학생회관장 김용환

예

● 곽정수 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특화사업에 보면 1일 체험학습 운영 그래서 거기 학

교육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예산 사업이라는 얘기죠?

● 학생회관장 김용환

예, 비예산 사업입니다.

● 곽정수 위원

내용을 보니까 유치원 및 초등학생한테 연중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하루 와서 여섯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를 하고 가는 것 같은데, 그 유치방법이나 구체적인 운영방법도 예상되는 실적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이렇게 특화사업이라고 표현이 되어서, 혹시 지금 예상되는 호응도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라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적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지요.

● 학생회관장 김용환

학생회관장 김용환입니다.

우리 학생회관에서 선택맞춤형 1일 체험학습을 위해서 2006년도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한번 호응도를 살펴보고 실제 참여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영동에 있는 양산초등학교, 또 청주에 내덕초등학교가 다녀갔습니다. 그 후에 학생도 좋아했고 또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특화사업으로 해서 각 초등학교에 홍보를 널리 해서, 우리 학생회관의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학교 실정에 맞게 여기 와서 안전체험

관도 보고, 또 체험학습도 하고, 박물관도 관람을 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수영장에 가서 수영 체험학습도 하고, 시간에 맞추어서 여섯 가지 시설 중에서 그 중에서 실정에 맞게 하루를 우리 학생회관에 와서 체험학습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이 되면은 한번 학교에 더 많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잘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곽정수 위원**

예,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마지막 장에 우리 문화재 뿌리찾기에 보시면은 지금 앞에 한 행사는 전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또 토요일 월 8회 해서 학교가 휴업하는 날 이제 여기는 근무해서 그런 행사를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이럴 경우에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학생회관장 김용환**

휴업인 토요일날 30명씩 연 8회 정도 모아서 강의도 하고, 또 문화재에 대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재 또는 지역에 있는 박물관을 현재 탐방할 그럴 계획으로 이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원들이 나오는 시간은 토요일이지만은 학생회관을 위해서 술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근

무시간을 갖고 또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달아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고맙습니다.

종합수련원 저번에 우리 위원들끼리도 얘기를 하면서, 거기 보면 시설현황에 면적이나 평수가 기록이 안 돼서 좀 봐서 안내가 적절하지 않아서 시설현황에 실수 밑에다가 면적이나 평수를 좀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 2006년도 주요추진성과 그랬는데 첫 번째 중요한 타이틀이 뭐냐면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통한 민주시민 자질 향상, 이렇게 표현이 돼서 그 언어구사가 글씨 좀더 간결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표현이 됐으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같이 직원들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야영수련활동에 레프팅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 그 수질오염 관계는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는지 궁금해서.....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종합수련원장 박영하입니다.

현재 그 세금천 수질은 3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할 때 2급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현재 2급수, 3급수가 돼 가지고 학생들 레프팅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 **곽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애들이 도전적이고 또 모험심이 강한 애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수질에 이상이 없다면 또 확대를 하고 진력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예, 알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6쪽에 보면 꿈과 추억이 있는 임해수련 운영, 이렇게 진술이 돼서 그것이 조금 표현상에 좀 매끄러운 뉘앙스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좀 표현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언뜻 해양을 향한 꿈과 추억이 있는 임해수련활동, 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모양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권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금년도에 우리 전국 학생교육원 교육요원 합동 연합회가 예산이 2,270만원이 지금 서 있는 상당히 큰 전국적인 행사인데 여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게 거기 보니까 기념품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념품이 300만

원 들어 있는데, 만원짜리 300개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공선법에 해당되는 해가 돼서 이것은 잘 한번 문의를 한 다음에 그 선물 주는 게 물론 타시·도에 주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또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이거 확인한 다음에 그 선물을 준비를 했으면 하고 권유 말씀을 드립니다.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예, 알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 다음에 특색사업에 보면 장애우와 함께 하는 바다체험 학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114만원짜리 예요. 예산서에는 이게 40명이 활동하는 걸로 돼 있고, 여기 보면 장애학생 80명 정도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러면 이거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 물론 비예산 사업으로 특색사업을 하면 더 좋습시다만은 예산이 들어갈 거면 좀더 과감하게 더 투자를 해서 특색사업, 뭐라고 그럴까, 누가 봐도 멋진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게 어떨까요?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40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좋아서 80명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 관계는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곽정수 위원**

그때 오면 아주 많이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 제가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도서관 방문 및 독서 체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이 단체로 희망하는 유·초·중·고등학교, 일반고객, 그래서 내용은 도서관 이용법, 자료검색법, 독후감 작성법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단체로 희망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희망을 어떻게 공문상으로 해서 희망을 받는 건지, 아니면 인터넷 상으로 하는 건지. 또 희망하는 학교가 없으면 이 사업을 죽여야 되는지 등등의 안내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에는 25회 6개교가 933명이 시행을 했다라고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는 어때요? 이것보다 더 많은 기관이나 단체나 학생이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더 쓰시고 있는 건지.

● **중앙도서관장 조계환**

중앙도서관장 조계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널리 알리는 방법은 주로 청주, 청원 관내에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에도 게재를 했는데, 지난해 실적을 반추해 보면 25회 또 인원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런 방면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이게 금년도 아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참 상당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신 관장님 마인드에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

이 사업이 더 좀 확대가 되고, 또 그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 충북교육을 이해하고 또 충북교육에 찬사를 보내는 쪽으로 그렇게 확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서 아주 참 좋은 사업 발굴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다문화 도서코너를 개설을 해서 지금 다문화 가정에 부모하고 자녀에게 우리 도서관에서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내용인데 지금 통계에 의하면 100쌍 중에 8쌍이 지금 국제결혼을 하는 가정이다. 더군다나 도시보다는 농촌으로 갈수록 더 많아진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이 도서관이 청주시에 위치를 해서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청주, 청원 관내가 가능할텐데 이것을 지방에 있는 우리 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이런 것을 좀

더 그 지역까지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 중앙도서관장 조계환

중앙도서관장 조계환입니다.

아까 일자 보고드릴 때 책자를 구입하는 과정과 절차 이런 것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내에는 전문도서를, 이런 국가들의 도서를 판매하는 곳이 없어서, 또 다양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1차적으로 베트남 도서 한 200권을 샀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서를 선정하는 것도 어떠한 유형의 책을 구입해야 될지 난감하고 그래서 이주여성인권센터하고 충북대학교의 전문교수님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책을 선정해서 한 200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서코너를 마련한다는 제명을 붙였습니다만은 이런 다문화 가정,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저희 도서관을 찾아와서 이것을 읽기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 같아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원봉사자와 또는 관계 기관, 또 청주시청 이런 데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고 회수하는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각 지역까지, 시·군 단위까지 확대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를 확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예

산상의 제약도 있고, 또 지역의 지역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너무 열악한 실정입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각 지역도서관에 연간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지원이 있어서 그것을 맥으로 겨우 필요한 도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금년도 시행을 하면서 호응도와 개선방안, 이런 것을 모색해서 저희들이 중앙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 도서관장님하고 협의해서 더 확대 여부를 또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뭐 사업이 하도 많아서 상당히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잘 저기 하시려면.

하여튼 뭐 몇 가지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그냥 마치겠습니다.

진짜 1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기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성영웅

곽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오늘 직속기관 금학년도 주요업무 브리

핑을 듣고보니까 연구원, 연수원, 교육원 이렇게 우리 충북교육의 두뇌기관답게, 그리고 또 기관장님들도 다들 학구파시라서 그런지 어려운 내용이 참 많고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질문드리는 입장이야 자유롭기는 하지만 자칫하다가 질문자의 지적수준이 드러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주도학습을 많이 해서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당장 좀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그 10쪽에 보니까 주문식 특별연구교사제가 있는데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좀 참여해 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주문식 연구이다보니 그것은 이제 필요한 정책과제를 프로젝트로 현장 교원들한테 주어서 이렇게 연구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 교육과학연구원장 강영선

예

● 김병우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알찬 결과물을 내고 그럴텐데 그것을 일반화하고 보급하고 적용하는 부분에 인터넷 탑재라든지 현장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쳐 버리면 오픈의 의미는 있지만 그 활용도 점검이라든지 하는 것이 조금 더 있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검토나 고려는 있으셨는지요.

● 교육과학연구원장 강영선

그것은 미처 못해 봤습니다, 솔직히.

● 김병우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과제는 정말로 필요해서 현장 두뇌들에게 주문해서 이렇게 연구결과물을 내는 것인데 그 결과물을 현장에 보급해서 어떻게 실효를 거둘 것인가 하는 점검이 따라주면은 더 알찬 프로젝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 교육과학연구원장 강영선

지금 김병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서 적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장님께 여쭙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그리고 순회문고 운영,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도서관 운영을 해 볼 때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책을 도서관에 그냥 비치해 두고 열람만 기다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가 있는 아파트를 가서 주민들한테 책을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주는 것이라든지, 또 뭐 기관 단체에 장기대출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앓아

서 기다리는 도서관이 아니라 갖다 드리고 읽을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도 사실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운동이나 책 읽기 운동을 벌일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학급에만 어떤 학급문고만 따로 설치해서 아이들 곁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거금을 들여서 많이 이렇게 사들여 놓은 책들을 조금 더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급단위로 뭐 장기대여라고 할까요, 분양이라 할까요, 이렇게 책을 학급단위로 가져다 놓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담임선생님들이 책 관리하는데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그래서 중앙도서관의 이런 찾아가는 도서관, 그리고 순회문고, 이런 발상을 학교도서관 운영하는 데에도 좀 적용을, 연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도서관의 이런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좀더 실효를 거두고 학교독서지도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중앙도서관장 조계환

중앙도서관장 조계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찾아가는 도서관과 순회문고를 학교단위까지 확대하

는 문제를.....

● 김병우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주민들에 대해서 하시는 그런 어떤 착상이, 발상이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적용돼서 학교도서관의 책을 학급단위로 이렇게 임대해서 하는 방법, 장기대출해서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 중앙도서관장 조계환

제가 답변드리는 소관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학교도서관이 학교에서의 일반적인 도서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독서교육이 상당히 중시되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도서관의 어떤 행정이라까 정책과 운영방법, 이런 것까지 지도하기에는 좀 범주가 좀 벗어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등교육과에서 학교도서관의 정책을 입안하고 그에 대한 지원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제가 제안드린 것은 중앙도서관에서 그렇게 찾아가는 도서관, 그리고 순회문고, 이런 사례를, 그런 의미나 효과를 잘 만드셔서 학교단위 참고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중앙도서관장 조계환

중앙도서관장 조계환입니다.

지금 김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바로 캐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학교순회교육이라든지 또는 저희 차원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발췌해서 일선 학교에 파급하는 그런 내용을 병행해 추진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각 기관의 업무계획을 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체로 보면은 상당히 고심을 하셔서 애쓰셔서 좋은 계획들을 많이 세우시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또 그런 말씀들도 주셨고 예년에도 보니까 선배 교육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이 관련되는 용어들이 너무 어렵고 외래어가 많고 한 부분이 좀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용어라든지 이론을 반영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또 역지로 조어를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쓰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런 것들이 허장성세로 비칠 소지는 있지 않을까.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상력이나 표현력이 부족한 시인들은 난해시를 쓰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부족

한 기획자는 굳이 뻔한 내용을 가지고 뭐 새로운 이름을 붙이려고 한다든가 또 어려운 이름을 달고 또 새로운 용어를 끌어다 쓰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학교선생님들도 실력이 있는 선생님들은 지도력이 높은 선생님들은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쉽게 가르치고, 자신 없고 실력이 부족한 선생님들은 쉬운 내용을 가지고 굳이 어렵게 가르치는 그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어들을 그냥 어려운 용어를 갖다 끌어다 쓰기도 쉽고 그러면 폼도 나고 이래서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그런 용어들을 우리말로 순화해서 쓰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우리 외국어교육원에서는 차라리 덜 쓰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연수원, 연구원 같은 데에서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우선 당장에 너무도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25쪽에 보니까 정보화연수 관련해서 연수 이름을 3-4-2, 3-4-3, 3-4-4 이런 과정들이 읽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MS e-CIO 스쿨리더십 연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연수입니까?

● 교육과학연구원장 강영선

솔직히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그 이러닝과 관계되는 학습전략,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성영웅

원장님이 모르시면은 부장님 아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홍종설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홍종설입니다.

정보화에 대한 관행어가 상당히 많이 많습니다. 여기에 나온 거 외에도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그때그때 이해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MS e라는 것은 이러닝 쪽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이러닝 쪽에 도와주는 스쿨 리더십을 위한 연수의 한 약자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거기에 밑에 있는 3-4-3에 MS Peer Coaching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생님들을 서로 짝을 지어서 코칭을 짓는 코칭에 대한 연수를 하는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약자에 대한 용어를 제가 연구원에 가서 정보화 담당 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래서 이런 명칭들이 사실은 많은 것을 상징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학설이나 이런 용어들을 짓는 사람도 무슨 의미를 담아서 하겠지

만 쓰는 사람들도 그 용어 자체가 어려우면 의미전달도 안될 뿐만 아니라 그 취지나 이런 것조차도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난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는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 교육과학연구원장 강영선

교육과학연구원장 강영선입니다.

지금 김병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함축된 의미를 간결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연구사나 부장님들이 자주 쓰는데요,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우리말화해서 순화해서 쓸 수 있도록 수정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단재교육연수원에도 14쪽, 15쪽 보니까 정말 처음 듣는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모듈식 연수기법,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영어실력이 떨어져서 읽지도 못하겠는데 웨실리테이터(Facilitator) 연수기법, 또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뭐 이런 것도 좀 저같이 이렇게 굳이 또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 개념파악이 되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을테니까 그런 명칭에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올렸을 때 좀 쉬운 말이 없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이 없느냐 그랬더니 지금 다들 그렇게 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떻게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단별 이런 내용이고, 웨실리테이터(Facilitator) 라는 것은 조력자, 도움 이런 내용이고, 브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은 혼합형, 그러니까 원격연수하고 일반연수하고 합한 이런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게 아니라 노력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원장님께서 대체할 용어를 금방 이렇게 작성해서 말 붙이고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알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국어선생이라 이런 부분에 더 유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말이, 외래어라고 하면은 우리말로 대체할 것이 없어서 가져다 쓰는 것이 외래어이고, 그런데 외국어는 대체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말이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아서 허장성세로 굳이 그렇게 갖다

쓰는 남의 나라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좀 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좀 사소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 계획서의 수준을 평가절하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정말 내실있는 그런 계획조차도 그렇게 허장성세로 곡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성영용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용 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김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용 위원

교육위원 김부용입니다.

6개 직속기관의 원장님들, 관장님들, 약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려서 방대한 그런 업무를 소개하기는 꽤 어려웠겠습니다만 제가 그 예산심의 때는 그 사업내용을 잘 모르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래도 말씀도 듣고 사전 안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참 굉장한 업무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서 우리 직속기관이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데에 대해서 고마운 이런 마음을 가

져봤습니다.

더구나 그 부족한 경비, 또 작은 인력으로다가 그 방대한 사업, 교육과학연구원 같은 경우에 55명의 직원이 약 3만명 정도의 직원을 교육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겁니다. 종합수련원 44명이, 얼른 계산해 봐도 6만명 이상, 또 단재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44명이 1만 5,000명 정도의 그런 굉장히 수혜 인원이 많은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참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하는 것에 재삼 또 한번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1개 기관의 말씀을 이렇게 쪽 들어보면요 참 많은 사업, 참 훌륭한 사업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체를 죽 듣고 파악을 해보니까 또 이러한 점이 생겨요. 이 서로 기관간에 중복이 되고, 또 서로 앞으로 통·폐합을 해서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져지는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행정질의나 또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다루겠습니다만 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조정능력을 가진 그런 기구를 설치해서라도 기관간에 서로 중복되고 하는 것은 업무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은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그 잉글리시존, 25억씩 들어가는 큰 방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외국어교육원

에서 역시 영어타운이 있다는 애깁니다. 물론 기관이 여러 군데 분산돼서 수혜의 폭을 넓히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은 그것 보다는 한 군데 집중해서 예산 또는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 또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자꾸만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단위 기관 별 몇 가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서 같이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과학전람회, 또 발명품경진대회, 또 탐구대회 그래서 굉장히 많은 행사를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일선에 있을 때의 느낌으로 봐서는요 사실은 과학부장 맡는 것을 꺼려해요. 과학담당 업무를 참 꺼려합니다. 왜, 자꾸 해 내라는 것이 있어요. 업무 무슨 계획을 내라, 발명품 경진대회 그래서 싫어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학교별로다가 의무적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느냐, 개선방안은 없느냐 한번 그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 교육과학연구원장 강영선

교육과학연구원장 강영선입니다.

물론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저도 꼭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원에서 각 학교에 부담을 드린다고는 생각을 저는 않는 입장이거든요. 협조를 구하는 것이고 그 학생들 기초과학능력 신장을 위해서 사업의 협조를 요청하는 입장이지 어떤 용어를,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강제성을 띤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저희 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같은 경우 타 시·도에 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입장입니다. 부담을 준다고, 저희 원에서 어떤 학교에 강제성을 띤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위원님.

● 김부웅 위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부담을 주신다는 것보다는 일선에서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부담감을 갖더라.....

● 교육과학연구원장 강영선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 김부웅 위원

현장 경험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니까 우암골 자연 생태학습공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번 몇 번 가봤어요. 상당히 좋은 시설이고 아주 훌륭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주로 이용하는 게 이제 청주시 학생들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프로

그램도 참 좋대요. 이거 좀 다른 시·군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 교육과학연구원장 강영선

다른 시·군에서도 전혀 이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다른 시·군에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제가 사는 곳이 진천이기 때문에 진천 아이들이 가끔 여기 동물원도 오고 그러는데 거기를 몰라요.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프로그램에 못 넣기 때문에, 저는 거기 가봤으니까 알아서 “야, 거기 좀 한번 가봐라”라는 얘기로다가 안내를 하는데 한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연구원장 강영선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 다음에 25쪽에 정보화 연수가 있는데요, 제가 일선 교장일 때 가서 그 CEO 연수 유익하게 잘 받았습시다. 그런데 이제 그 연수프로그램을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단재교육연수원에서 받는 거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교육과학연수원에서 하는 그 연수원에는 CEO의 앞에 여러 가지 강의 같은 이런 것보다는 정보화연수기 때문에 기능연수 또는 그 실습 시간을 많이 주어서, 오히려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자칫 컴퓨터를 멀리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하다보니까 기능이 퇴화가 되는데, 그런 데서 연수기능을 살려주는 게 어떠냐 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 원장님, 괜찮은가요?

● 교육과학연구원장 강영선

교육과학연구원장 강영선입니다.

지금 김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능연수 중심으로 하려면 저희들 컴퓨터실이 2실이라서 80명밖에 수용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교육부차원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서 여기 계획에는 480명으로 되어 있는데 560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되면 기능 중심 연수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부용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보시면 영재교육센터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게 여기도 영어영재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외국어연수원이 거의 비슷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업무량을 줄이는 게 오히려 어떠냐. 외국어교육원으로 보내고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에서 보면 거기 사이버 가정학습, 이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은 외국어교육원에서 사이버 연수를 또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 결국은 같은 시간대에 운영되는 거라고 하면은, 또 같은 자료 들어가서 하는 거라면 이런 것이 통·폐합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질의사항은 아니구요.

다음은 단재교육연수원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단위학교 현장연수 지원, 연수시범학교 연수 지원, 이게 바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일하고 같은 거예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통·폐합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13쪽에 각종 자격연수, 또 직무연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연수기관이 공히 다 같을 것 같아요. 연수가 끝나면 이수증을 발급을 합니다. 그 이수증을 학교로 가져가죠. 학교를 가져가면 교감 선생님한테 그것을 내서 교감선생님이 그것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은요 선생님이 그 이수증 안 가지고 가서 집에 뒀다가 분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잊어버려. 또 교감도 잊어버려. 얼마 있다가 인사기록 등재하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단재교육연수원에 가서 또 발급해 주세요, 아니면 교감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하게 되더라 얘기에요. 그러면 이게 연수기관

에서 그 이수된 사항이 죽 나와 있으니
나이스에다가 거기서 직접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단 얘기에요. 그런 방법 안 될
까요?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입니다.

저희들은 이수증만 주지 이수한 모든
내용은 도교육청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합
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각 학
교로다가 접수하고 개인별로다가, 그것은
정보누출이기 때문에.....

● 김부웅 위원

절차는 제가 압니다.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이렇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그걸 나이스에 들어가서 전부 다
입력을 시킨다는 것은 월권이 아닌가 그
런 생각이.....

● 김부웅 위원

월권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선생님들에
게 오히려 업무를 간소화시키고 편리하게
해 주고요, 또 교감 입장에서 보면 굉장
히 그게 업무가 간소화가 되는 건데, 왜
냐하면 그 나이스가 전부 들어와 있기 때
문에 연수기관에서는 인적사항 놓고 치면
그리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체제
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도교육청으
로 가서 거기서 지역교육청으로 가서 또
이리 와서 중간에 잃어버리면 난처하고

그런데 한번 그런 방안 좀 연구해 주세
요.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
다.

● 김부웅 위원

이상입니다.

중앙도서관, 제가 뭐 간략간략하게 말
씀 드려볼게요. 중앙도서관 121쪽을 보시
면요 평생교육이 있는데 여기하고 학생회
관의 평생교육하고 거의 업무가, 물론 내
용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업무 제
목부터 막 같아 그냥. 그래서 이게 서로
업무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학생회관, 학생회관은 본관, 교
육박물관,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수영
장, 사람 몇 사람 안 되는 분들이 굉장하
큰 데를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생
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12쪽하고 13
쪽의 주요업무를 보시면요 도서관 주관행
사, 독서의 달 행사, 아까 도서관 업무하
고요 제목도 똑같이, 제목도, 내용도 비
슷하고. 그러니 이런 업무들은 학생회관
에서 도서관으로다가 과감하게 이관을 해
주시고 업무를 줄이는 게 오히려 학생회
관에서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관장님 어떠세요?

● 학생회관장 김용환

학생회관장 김용환입니다.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여기 나오는 주간행사와 독서의 달 행사는 우리 학생회관에는 도서실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함께 하는 행사입니다. 전국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는 행사기 때문에 제목도 다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업무조정에는 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감님이 보실 때에는 업무능률도, 또 예산절감도, 또 인력 효율성도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요 생활회화 외국어 중심 교육, 지금 아주 외국어교육원에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어교육원에서 하는 외국어가 몇 개 국어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외국어교육원의 김준곤입니다.

저희들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만 세 가지고요, 금년도부터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가 더 있어서 네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 김부웅 위원

고맙습니다.

학생회관에서 보니까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80명에 대해서 과목

당 50시간, 이게 외국어교육원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 거기서. 그래서 “아, 이렇게 업무가 이관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잠깐 또 해봤습니다.

● 학생회관장 김용환

학생회관장 김용환입니다.

저희는 이제까지는 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영어는 빼고 제2외국어인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를 각 과정별로 20명씩 해서 1년 동안에 50시간을 기초 정도 회화 위주로 외국인 강사를 위촉을 해서 우리나라 담당교사와 함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원은 영어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거기서 하지 않는 제2외국어만 하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러니 외국어교육원의 코가 조금 내려가야 되겠네요. 아, 이것은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업무조정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종합수련원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임해수련원, 진천야영장까지 다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임해수련원은 넘쳐흘러서 수용이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진천은 실적이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런 것 좀 한번, 해마다 실적을 즉 분석해 가지고 가장 많이 잘 이용하는 학교가 있고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에 보상대책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종합수련원장 박영하입니다.

그런 참여 실적이 많은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 김부웅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임해수련원 시설 사용 홍보인데 퇴직교원, 교직원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저도 퇴직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퇴직교원들이나 교원 가족들이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그러니까 성수기에는 피해서라도 비수기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하는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래서 일선 교원들도 알고, 또 퇴직교원들도 알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대, 이런 소리라도 해서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원 11쪽을 봐주시

면 학부모와 함께 하는 주말프로그램 개설 했는데, 거기 보면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 4개 학급 40명, 주말 2일, 연간 400, 이게 한번 들어간 사람들이 주말 2일씩 연간 4번을 받는 건지, 아니면 자꾸 대상이 바뀌는 건지.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입니다.

한 번 일단 들어온 학생들은 제외가 됩니다.

● 김부웅 위원

그러면 한 번 들어가면 그만이네요. 이틀만 받으면.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예, 그렇습니다.

● 김부웅 위원

이거 참 아쉽네요.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그것은 이제 저희 수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불평이 많이 들어옵니다.

● 김부웅 위원

그것은 외국어를 좀 아는 사람 외에는 가서 할 수도 없겠네요. 그죠?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그런 면도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능하면은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으면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좋겠습니다만 적은 인원이라도 확실하게 영어교육은 좀 들어갔다 나오면 그래도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는 심어 주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웅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성 위원 거수하여 발언 신청)

박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성 위원

교육위원 박노성입니다.

먼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기관에 한 두 가지씩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10쪽을 봐주시면은 아까 김병우 위원님께서 주문식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두 번째 특별연구교사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매년 거의 35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원장님께서서는 확대 운영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연구원장 강영선

교육과학연구원장 강영선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 운

영할 의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확대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걸로. 이번에 이제 유치원은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함께 이 특별교사연구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거든요. 앞으로 선생님들의 요구가 있으면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 인원수가 35명이 훨씬 초과가 돼서 선정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 교육과학연구원장 강영선

위원님, 그러면 저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만 충분히 해 주시면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 박노성 위원

원장님께서 예산 세울 때 인원을 50명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려서 예산 삭감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재교육연수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쪽에 전국 교육연수원 우수 사례

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금년도에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신규사업 맨 밑에 있어요. 통합논술 대비 연수 확대,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입니다.

통합논술은 주로 국어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 과목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통합논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초등학교 글짓기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 이와 같이 연수를 했는데 아주 호응도가 높고, 아까 인원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40명 모집을 하면 그 이상 와가지고 서로 해 달라고 이렇게 아주 호응도가 높은 그런 연수과정입니다.

● 박노성 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친절 3S(일어나서 맞이하기, 웃으면서 응대하기, 신속하게 처리하기) 운동 전개, 아주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현장에 가서도 역시 단재교육연수원 교직원들은 상당히 이쪽으로 접근을 많이 해 가는데 다른 직속기관장님들께서도 이런 시책을 한번 좋

은 시책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였으면 하고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여기에서 4쪽을 보시면 이용시간을 11시까지 확대 운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진자로 상당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 운영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아까 김병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허락이 된다면 좀 확대 운영을 해 주시고, 특히 이러한 도서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 지역, 주로 청주, 청원만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지 지역도 좀 확대 운영할 수 있으면 확대 운영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계환 관장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도서관장 조계환

중앙도서관장 조계환입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이 지금 호응도도 높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버스 두 대를 가지고 월요일을 제외하고 나흘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4개 지역입니다. 오전, 오후 두 군데씩 이렇게 해서 버스 두 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인력과 버스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도서관에서 버스 한 대 정도 더 운영을 한다,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청주, 청원 이외의 지역까지 확대하는 문제도 역시 맞물리는 겁니다만은 현재에도 종전에 운영하던 데를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꾸면은 그 빚발치게 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상기관을 변경하게 되면 미리 한 달 전에 당해 지역에 양해를 구하고, 예를 들어서 울랑동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그 지역을 제외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새롭게 시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3월달에 개관이 돼서 그쪽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감안했습니다만은 버스 증차와 운행 확대, 이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노성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학생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병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기관이 종합적으로 대여섯 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51명 인원 가지고서 어떻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 학생회관장 김용환

학생회관장 김용환입니다.

직원들이 부족은 하지만 거의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의 수영강사들은 시간외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편입니다.

● 박노성 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데 관장님께서서는, 다른 기관장님들도 마찬가지로겠지만 격려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은 교육유물의 발굴 수집 관리 연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 학생회관장 김용환

학생회관장 김용환입니다.

저희가 지금 박물관에 진열한 유물은 150점이고 현재 수장고에 보관 중인 유물은 1,600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유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유물을 소장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기증을 유도하고 있고, 또 기증이 안 되고 꼭 필요한 것은 구입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 학교에 전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학교에서 혹시 옛날 물건, 폐기를 할 때 혹시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회관과 일단 상의를 해서 저희가 가서 보고 유물로 가치

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회관에 유물수집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학교를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 박노성 위원

아주 좋은 시책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20쪽에 보시면 수영장 운영의 내실화해서 인원이 연 인원 회원 1만 6,000명, 1일 입장 8만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 학생회관장 김용환

학생회관장 김용환입니다.

우리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연 인원 회원은 한 달에 성인은 5만원, 중·고등학생은 3만 5,000원, 초등학생 3만원씩 이렇게 회원권을 끊어서 한달 이용료를 끊어서 입장하는 사람이 월 회원이고, 그런 분이 1년에 1만 6,0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한 달에 평균 한 1,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입장은 매일 와서 필요할 때 와서 하루 입장료 초등학생은 1,500원, 중·고등학생 2,000원, 일반인 3,000원 이렇게 매일 내고 입장하는 사람 숫자입니다, 연 인원입니다.

● 박노성 위원

일일 입장 연 인원, 나는 하루의 입장객이 8만명.....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학생종합수련원, 야영활동에서 1박2일 코스가 임해수련원에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1박2일이라고 하면 아침에 8시에 모여서 거기 가서 밥 먹고 그 이튿날 점심 먹고 퇴원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이 과정이 좀 어떻게 적합한가 한번 우리.....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종합수련원장 박영하입니다.

코스가 1박2일, 2박3일 이 두 과정이 있습니다. 학교 형평에 의해서 신청하는 기관대로 저희들이 접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2일도 내실있게 하면은 좀 보람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 박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생외국어교육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교육 연 인원이 3,35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도 좀 한번 해 보신 실적이 있습니까?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입니다.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만족도 조사는 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과정을 마칠 때마다. 그랬는데 최소한 95% 이상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드물게 보통, 불만 이렇게 나오기는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학생 반응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 박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내용을 너무 년출지게 20글자가 넘어가면은 사업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관장님들께서는 사업내용 이런 부분을 좀 간결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아까 광정수 부의장님이나 김병우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20자 넘어가는 사업내용은 검토를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단재나 중앙도서관 사업내용을 보면 아주 딱딱 10글자 이쪽 저쪽이거든요. 그래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각종 연수 시에 강사 선정, 물론 잘하고 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강사선정을 철저히 잘 하시고, 특히 유명한 대학교수보다는 현장 실무에 밝은 이런, 평교사면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을 많이 선정을 해 주시고, 아까 외국어교육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강생들의 만족도 조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연수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그 다음에 교육내용도 좀 다양화를 해서 수강생들로 하여금 “아, 참 이번 연수는 참 유익했다, 어느 강사님 강의는 참 유익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외래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관계는 각주를 달든가 그렇지 않으면 괄호해 놓고서 설명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관장님들이나 부장님들도 자신 없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서, 아, 전문가도 그런데 우리 같은 혹은 다른 평범한 사람들은 그 외래어를 보고서 이것이 뭔가, 그 사전 찾기도 뭣하고 그러니까 꼭 각주를 달든가 괄호해 놓고 설명을 하시든가. 그래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청주, 청원 지역 학생, 학부모들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는다 지역 학생들이 각종 연수나 체험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골고루 전 도민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수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평생교육이 상당히 강조는 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학부모 교육을 해야 되지만 그 여력을 우리 학생 교육의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떤가. 이렇게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박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수웅 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예, 서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서수웅 교육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 빼고요, 유인물로 나온 이 계획서가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정을 요하는 건지 두 가지만 지적하고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도서관 1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권장도서 및 신간도서 목록 배부 내용에 신착도서에서 우수도서 선정 그랬는데 신착도서라는 용어를 내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오기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도서관장 조계환

중앙도서관장 조계환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신간 도서를 표기한 것이 아닌가. 제가 전문적인 것을 아직 제가 잘 몰라서 신착도서라는 말이 아주 고정화된 용어인지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 서수웅 위원

지금 관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을 듣고 제가 마음이 조금 놓이는데, 이것을 여쭙보려고 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했어요. 망신당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랬는데.....

● 김병우 위원

신간도서라고 하는 것은 출판사에서 발간한 것이 최근이라는 뜻이고요, 신착은 우리 도서관에 최근에 구입해서 새로 들어온.....

● 서수웅 위원

아, 그럼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용어치 같은 저한테는 아주 낯선 용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써야 되느냐 그래서.....

신착도서 되겠네요. 그렇다면 뭐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련원에 8쪽하고 1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보다 보니까 10쪽에 보령시청에서 장애우 바다

체험에 보면 학교수가 5, 인원수가 180명 이렇게 나왔는데 8쪽에 보게 되면서.....

(잘못 표기된 부분을 정정하여 다시 의석에 놓음)

아, 고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된 거면은, 이게 밖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게 그.....

살펴보시고 저한테 1차 오기 전에 고쳐줬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하나 여쭙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외국어수련원에 주말 프로그램이 작년엔 다섯 번 했죠?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예, 작년엔 다섯 번 했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런데 올해 넷으로 줄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외국어교육원 김준곤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처음 개설한 주말과정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다섯 번이면 적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과정은 상당히 운영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첫째는 원어민, 그 다음에는 선

생님들. 1주일 내내 하다가 주말에 또 나오라고 하면은 상당히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1회를 줄여보자, 올해는. 더군다나 학부모를 초빙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서수웅 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외국어교육원 같은 데서 기별로 아이들에게 포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많으면 제가 포상내용을 여쭙보면 좋는데 주문만 하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잘 했으므로 이 상장을 줘, 이거보다는 며칠전에 신문을 보니까 21세기를 이끌어갈 청소년 선정을 한 게 나왔어요. 충북에서 두 명인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아, 이거다' 우리가 그냥 무슨 상 무슨 상 줄 게 아니라 정말로 개한테 다른 사람한테 동기가 유발될 수 있는 내용으로 상장의 제목이나 내용을 써서 정말 21세기를 빛낼 수 있는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포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단위 기관에서 아이들 수련을 주로 많이, 또 영재성을 많이 키우고 계신데 키우는 것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과정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내용의 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

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서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소상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단재교육연수원에서 미래대비 고품질 연수기획 제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속에 신규사업으로 통합논술 대비 연수 확대, 또 조금 전에 박노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더 한번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지금 서울의 주요 대학,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주요 대학들이 논술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 논술을 통합적으로 하는 이유가 인문계 학생은 자연과학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또 자연계 학생들은 인문 사회 과학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커버하려고 하면은 국어선생님도 과학을 좀 알아야 하고, 또 이공계 선생님들도 인문 사회 과학을 알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선 학교에서는 그동안 지도를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아주 선정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보니까 아마 교육부하고 서울대학에서도 논술지도를 위한 교사 연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많이 보내주시고, 또 특히 거기 안 갔다 오셨다 하더라도 우리 일선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논술지도에 상당히 권위라고 할까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착출해서 이 통합논술만 잘 해도 우리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서울에서 통합논술지도에 대한 엄청난 사교육비가 지출이 돼요. 또 우리는 그런 훌륭한 지도교사도 없고, 사실은 지난번에 보니까 서울 강남의 유명한 학구보다 군 단위 지역의 학생들 성적이 좋았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아주 기쁜 마음인데,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여기에 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좀 많이 지도를 해 주시면 우리 충북 학생들이 대학에 논술만은 자신있게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대단히 좋은 사업 선정해 주신 거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지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예, 고맙습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 의장 성영웅

이상일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준비도 많이 하시고 또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종합수련원장님께 잠깐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설이 계속 적자죠? 운영상.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예

● 의장 성영웅

거기 결손을 방지할 수 있는 혹시 대책같은 게 있으신지.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종합수련원장 박영하입니다.

작년도 자립도를 따져보니까 한 28%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어차피 그게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상유지밖에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 의장 성영웅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의 시설 관계는 시설 나름대로 사생활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계속 그런, 물론 복지시설이라고 그래서 계속 투자만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성영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및 질의의 답변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직속 기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계획 수립이 잘 됐다 하더라도 기관장님들의 관심과 의지가 없으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통하여 보여 주신 기관장님들의 의욕적인 실천 의지를 한 해 업무에 추진하시어 훌륭한 교육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직속기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50분 회의종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성영웅,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박노성, 서수웅, 박노성.

0 출석공무원 : 6명

교육과학연구원장 강영선,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중앙도서관장 조계환, 학생회관장 김용환,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근.

